

시마네현의 대응

시마네현 대책 본부 결정

시마네현 및 전국의 감염 상황과 기본 대처 방침을 고려하여, 시마네 현민에게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요청 기간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당분간으로 한다.

1. 도도부현이 주민에게 불요불급한 외출 자속을 요청하고 있는 지역과의 왕래는 신중하게 판단할 것. 특히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왕래를 자제할 것.
단, 어쩔 수 없는 업무(통근을 포함)나 통학, 전근, 취업 활동, 장례, 병간호 등의 왕래는 발열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삼갈 필요는 없음.
2.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 위험이 증가하는 「5가지 상황 (음주를 동반하는 모임 등, 집단이나 장시간에 걸친 회식, 마스크 없이 대화하기, 좁은 공간에서의 공동생활, 자리 이동)」에 주의하고, 계속해서
 - (1) 「3밀(密)」을 피할 것
 - (2)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 확보」
 - (3) 「마스크 착용」
 - (4) 「손 씻기, 손가락 소독」
 - (5) 「환기」등, 기본적인 감염 대책을 지킬 것.
3. 단신 부임 중인 가족 등, 자택 등에 외부로부터 귀현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에서 지킬 수 있는 감염 예방 대책
 - (1) 대화를 할 때는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 (2) 문고리나 전기 스위치 등 손으로 만지는 공용부분 소독
 - (3) 비누로 꼼꼼하게 손 씻기 및 알코올 소독
 - (4) 창문을 열어두는 등 정기적인 환기
 - (5) 침실 나누기
 - (6) 세면대 등의 수건이나 컵을 공유하지 않기
 - (7) 큰 접시에 담은 요리를 피하고, 식기나 젓가락 등을 공유하지 않기등을 철저히 할 것.
4. 백신 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할 것.
발열이나 감기 등의 증상이 있는 분은, 업무나 학교는 쉬고, 외출을 삼가고, 신속히 주치의나 「건강상담 콜센터」에 연락한 후, 조속히 의료기관의 진찰을 받을 것.
아동·학생의 보호자도 철저히 이러한 대응을 철저히 할 것.
각 직장에서도 직원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촉구하는 등,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음식점 이용에 대해서, 각 점포에서 감염증 확대 방지 대책을 철저히 지킬 것, 현민 여러분께도 대책을 지키고 있는 점포를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 (1) 「현 외부 사람과의 식사」는, 음주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여, 현 내에서도 현 외에서도 삼갈 것
 - (2) 식사 시 인원수를 12명 이하로 하고, 현 외부인과 식사하신 분이나, 현 외부인의

자택에서 숙박하신 분, 현 외에서 가족이나 친척이 자택에 귀성하신 분은, 그 후, 2 주가 지날 때까지는 참가를 삼갈 것

- (3) 시간은 복수의 점포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합계 3 시간 정도로 할 것
 - (4) 「접대를 동반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 ① 현 외에서도 이용을 삼갈 것
 - ② 현 내에서도 현 외부인과의 이용을 삼갈 것
 - (5)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업소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마이크, 리모컨 등의 소독, 노래를 부를 시에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감염 대책을 철저히 준수하며 규칙들을 지킬 것.
6. 단,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닛토리현과 생활(통근, 쇼핑 등) 권역에 속하는 히로시마현・야마구치현의 일부 지역은 현 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실내 환경 (습도 40% 이상, 온도 등)을 유지하면서 충분하게 환기할 것.
8. 후생노동성이 제공하고 있는 접촉 확인 앱(COCOA)을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치하여 활용할 것.
9. 사업소에서는 재택근무(텔레워크), 시차출근, 자전거 통근 등,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대책을 실시할 것.
10. 감염자와 관계자 등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SNS 에서 비방・중상, 소문 등은 엄중히 삼가며, 시정촌 등의 공적 기관이 발신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인권을 배려하는 냉정한 행동을 취할 것.